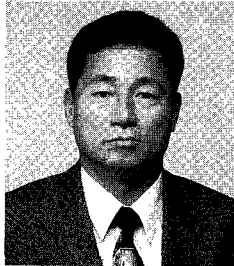


육계 생산비 절감, 사료 요구율을 낮춰야 한다.



최길영
영남농장 대표

육계업에 종사하는 우리 육계업자에게는 삼복더위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우리가 생산하는 닭고기가 계절식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여름 장마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것을 초월한 자연의 재해였다.

괴상한 이름으로 나타난 게릴라성 폭우는 전국토를 초토화시키고 지나갔다. 이러한 폭우속

에 우리 육계업자들은 가슴 저리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폭우로 인해 물이 가슴까지 찬 계사안에 널판지를 띄워 닭 한 마리라도 살려 보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무심한 닭은 널판지에 가만히 앉아 있기는 커녕 풍당 풍당 물속에 잠수하고는 올라 오지 않았다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우리 육계업자들은 체험하고 안타까워 하면서 아쉬운 1998년은 저물어 가고 있다.

우리 육계업이 계열화가 시작되면서부터 한탕주의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양관리 체제와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면 업계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출하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생산비도 못미치는 가격에 출하를 하고 병아리 구입을 잘못할 경우 출하율이 떨어져 생산비가 올라가고, 사료선택을 잘못하면 사료 요구율이 나빠져서 생산비가 올라가는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

그리고 병아리에 대한 생산비를 살펴보자.

우리나라 육계병아리 가격이 일정치 않음은 물론 품질도 변화가 많아서 병아리 구입시 품질이 나쁜 병아리를 구입하면,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고 출하율이 떨어져 생산비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아리 구입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1. 병아리 구입에 신중을

우리 육계업이 계열화가 정착되면서 한탕주의에서 벗어나 철저한 사양관리 체제로 돌입한 지 오래다.

병아리 선택이 잘못되면 닭을 출하할 때 출

하율이 떨어지면서 생산비가 올라가게 된다.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세가 나와도 손해를 보고 출하하는 농가들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병아리 입추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는 종계장의 종계 성적이다. 가능하다면 내가 병아리 구입하는 종계장의 종계 일령과 부화성적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한 후 같은 일령의 종계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받을 수 있어야 닭을 출하할 때 손해를 보지 않는다. 병아리 입추 숫자보다는 닭 출하 숫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흔히 95% 출하를 하면 닭을 잘 키운 업자층에 든다. 그러나 실제로 계산하면 닭이 3% 있기 때문에 출하율이 92% 밖에 안되기 때문에 8%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가능하면 출하율을 높여서 손해를 덜 보게 해야 한다. 필자는 병아리 입추시 부화장에 문의하여 내가 받게될 병아리에 관해 몇주령 종계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반드시 알아본다.

그리고 입추된 병아리는 수의과학연구소에 혈청검사를 의뢰한다. 또 혈청검사 결과에 따라 백신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철저한 사양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농장 경영일지에 사양관리, 폐사 등 농장에서 일어나는 세밀한 일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차기 입추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2. 사료 가격을 잡아라

사료 선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료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 사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사료를 잘 만들려고 해도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은 예전과 달리 사료 회사 직원들이 품질에 신경을 쓰고 있으므로 품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들과 상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된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가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료 가격이다. 공장도 가격은 비슷하나 사료 회사마다 제시하고 있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결제일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공장도 가격에서 몇 퍼센트 할인을 받을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요즘 사료회사 직원들이 선금 거래시 과격적인 사료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은 사료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어 과거보다는 좋은 가격에 품질 좋은 사료를 구입할 수 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농장의 사료 요구율이다. 1.5kg 출하를 할 때 나의 농장과 다른 농장의 사료 요구율을 비교해야 한다.

우리가 닭을 출하할 때 생각하는 것은 몇 일령에 중량이 얼마인가 물어 본다. 그러나 이제 부터라도 사료 요구율이 얼마인 닭을 출하했느냐고 물어 보는 것이 농장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산비를 낮추는데도 도움이 된다.

3. 철저한 사양관리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병아리를 입추해서 출하시까지 한시도 긴장을 풀어

서는 안된다.

봄 사양관리는 비가 자주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온도 관리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환기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하므로 계사내의 습도 조절이 어렵다.

습도가 높으면 닭의 체감 온도가 올라가서 사료 섭취량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높은 영양의 사료를 공급해야 한다.

가을철은 기온과 습도가 적당하므로 성장 속도가 어느 계절보다 빨라진다. 성장이 빠른 만큼 영양이 부족하지 않도록 영양제를 보충하여 성장의 지연이 없도록 해야한다.

야간에는 급격히 내려가는 온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사계절중 가장 어려운 시기가 겨울철이다.

병아리 입추시 열풍기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계사내의 습도 부족으로 병아리가 활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습도 조절이 필요하다.

20일이 지나면서부터 계사내 습도가 올라가지만 바깥 날씨가 추워 환기시키기가 쉽지 않다. 특히 계사내의 가스 발생이 많은 계절이므로 계사 바닥이 질지 않도록 왕겨나 벧짚을 계사 바닥에 깔아주어야 한다.

사계절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급수방법이다. 아무리 좋은 병아리에 좋은 사료를 공급하더라도 급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닭이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급수기에 공급되는 물이 항상 깨끗해야 함은 물론 급수기를 연결하고 있는 호스도 항상 청결해야 한다.

4. 방역에 만전을 기하자

육계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이야기는 재수가 없어서 질병이 왔다고들 한다.

전에는 백신 같은 것 하지 않아도 닭이 잘 컸는데 요즘은 육계하기 어렵고 힘이 들어서 못하겠다고 한다. 나도 질병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을 한적이 있다.

처음에는 호흡기만 오더니 해가 거듭될수록 복합으로 오기 시작했다.

많은 피해를 보고서야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지금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느 정도 방역이 이루어지면서부터는 병아리와 사료에 대해 닦았던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병아리 입추전 쥐만 박멸을 하더라도 사료 손실은 물론 병아리 손실을 막을 수 있어 한층 더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입추 후에도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면 생산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볼 것이다.

끝으로 소리없이 타는 세월 속에 내 혼을 태워 이 길을 걸어 온지 어언 20년이 된다.

뿌리 깊은 나무가 그 생명력이 견고하다고 했다.

나무 뿌리는 또한 어우둔 땅의 지맥을 더듬어 긴 겨울을 지내고 새 봄이 오면 푸른 새싹을 돋듯이 밝아오는 새해는 희망의 태양이 우뚝 솟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양계**